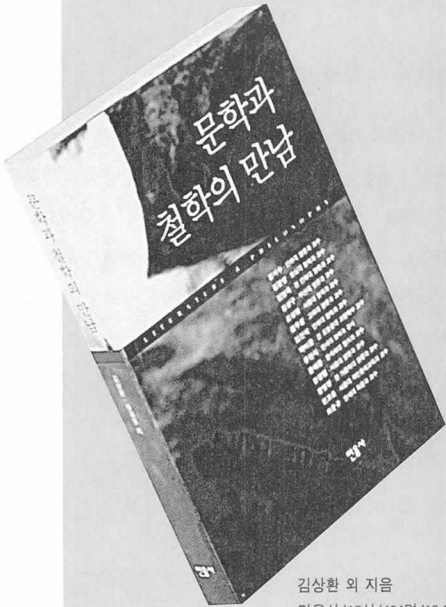


문학과 철학의 화해 모색해 문학의 '공헌' 빠져 아쉬워

《문학과 철학의 만남》



김상환 외 지음
민음사/A5신/434면/15,000원

하나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기 2000년의 벽두에 '문학과 철학의 만남' 이 시도된 것이다. 이 만남을 '사태'로 표현한 것은 두가지 의혹에 기인한다. 첫째, 인문정신의 양대산맥인 문(文)과 철(哲)이 새삼스럽게 만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굳이 만남이 필요한 것은 관계가 불편하다는 뜻일 텐데, 인문정신의 양대 지주인 문학과 철학이 피차 대면대면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14인이 공저한 《문학과 철학의 만남》은 그 해답을 역사적인 점검과 원론적인 성찰, 구체적인 작품론을 통해 모색한다. 이 책은 우선 문학과 철학이 불화의 관계에 놓인 이유를 지향성의 차이에서 찾는다(1부 <문학과 철학>). 특별한 상황을 꾸꾸는 문학과 보편적 개념화를 시도하는 철학은 진실의 각도부터 다르다. 문학과 철학은 하나의 세계를 비추는 양면의 거울과 같아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김상환은 이를, 예술을 정신(철학)에 편입시켜 위대한 예술의 종언을 고하는 헤겔과, 헤겔의 예술철학을 '가장 위대한 미학'이라고 칭한 하이데거의 차이로 설명한다.

둘의 차이에 대해 김상환은 초월과 전복의 다양성을 말하면서, 문학과 철학은 서로를 "찾고 보

존하는 가운데 위대해질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2부 <문학 비평과 철학>에서 김우창은 데카르트를 논점에 두고 '문학과 철학 사이'를 유영한다. 풍부한 예증이 돋보이는 김우창의 글은 철학의 초월적 사유가 실제의 삶에 대해 빈곤한 인식을 노정할 수 있음을 경계한다. 장경렬은 상상력(문학)을 이론화할 수 없는 철학의 난점과, 언어의 굴레(사유)를 벗어날 수 없는 문학의 난점에 관해 정밀한 논의를 전개한다. 그는 '구속 안의 자유'라는 역동적인 논리를 통해 문학과 철학이 만나는 장소가 '내적 초월'의 지점임을 설파한다. '제 살 깎아먹는 프로이트'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김진석의 글은 특유의 '지적 독설'이 난무한다. 그는 프로이트가 몸의 포월과 마음의 소내하는 힘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안으로 더 넓어지고 더 낮아지는" 삶의 방법을 제안하는 김진석의 글에는 몸과 마음을 두루 지닌 인간적인 철학과 문학에 대한 지향이 깔려 있다. 최문규는 은유(언어)의 이중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텍스트의 운명을 성찰한다.

3부 <문학 작품과 철학>에는 초서와 제인 오스틴, 윌리엄 골딩의 문학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 실려 있다. 유일하게 한국문학 작품을 다룬 유현석의 글은 최인훈의 글쓰기를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논구한다. 철학적 감식안과 문학에 대한 분석력이 잘 결합된 이 글은 문학비평가들에게도 좋은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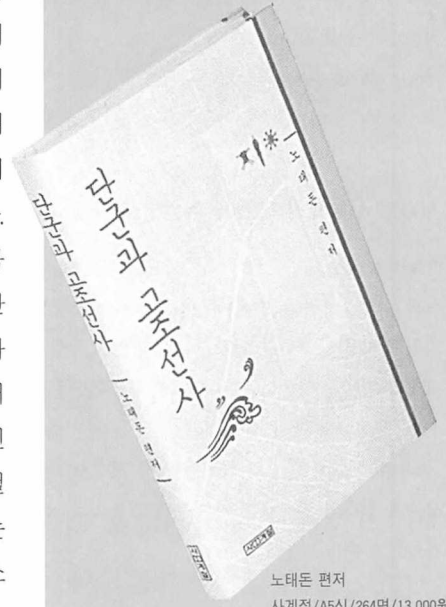
이 책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학이 개척해 온 철학적 영토에 대한 고찰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 문학은 철학이 담당해야 할 몫을 일정 부분 대행해 왔다"고 한 한국문학 연구자는 말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위대한 문인과 문학 작품은 그에 상응하는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다. 그 통찰은 예언적이기까지 하다. 이 책의 증보판이 나온다면 4부에서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어떨까? 이것은 문학, 그 중에서도 한국문학을 전공하는 필자의 각별한 아쉬움인지도 모르겠다.

김수이

문학평론가. 논문 <서정주 시의 변천 과정 연구> <타자와 만나는 두 가지 방식> 외.

단군신화의 역사적 기능 탐구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열어

《단군과 고조선사》



노태돈 편저
사계절/A5신/264면/13,000원

단군신화는 민족사의 출발점이면서 민족의 유구성과 독자성의 상징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기존 학계는 단군과 고조선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는 자간의 역사인식 방법론의 심각한 차이에 따라 일부러 연구를 회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최근 출간된 《단군과 고조선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많은 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크게 3부로 구성돼 있다. 먼저 1부 <단군과 고조선사의 이해>편에서는 편저자의 단군과 고조선사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단군신화가 청동기시대를 배경으로 고조선의 건국과 함께 성립된 것이며, 고조선의 건국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신화라고 밝힌다.

편저자는 2부 <고조선사와 단군신화>편에서 《위략》의 문헌자료와 비파형동검·세형동검의 분포 및 연·진시기 장성의 위치와 낙랑 문제 등을 통해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에서 대동강유역으로 이동해 왔음을 논증한다. 고조선 사회는 후기 단계에는 삼국초기의 정치구조인 부체제와 비슷한 정치체제를 운영했다고 봤다.

그렇다면 이런 고조선의 등장 이전 시기인 단군신화로 표현된 시기는 어떤 사회인가. 서영대는 <단군신화의 의미와 기능>에서 단군신화가 고조선 사회에서 정치권력이 어떻게 대두됐는지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것이며, 그것은 시조 왕의 신성성을 최대한 부각시킴으로써 고조선의 정치 권력을 정당화 내지는 합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논구한다.

3부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인식의 변천>편에서 먼저 고려·조선조의 단군 인식 고찰을 통해 단군은 시대에 따라 항상 새롭게 해석되면서 사회적 위기나 전환기 때마다 사회 내부의 결속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군과 고조선사는 근대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인 반제와 반봉건 근대화라는 과제 속에서 민족적 각성과 결속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정신적 기둥으로서 역할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재야사학자들이 단군조선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환단고기> <규원사화> 등 필사본은 대중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근대에 만든 위서(僞書)라고 결론짓고 있다. 끝으로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보여온 북한학계의 연구성과를 정리하면서 본서의 글을 맺고 있다.

편저자는 그동안 단군에 대한 논의가 합리성과 객관성의 토대 위에서 민주적 민족공동체의 방향성에 맞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의 주장처럼 국가주의적·전체주의적 통합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조작으로서 단군을 내세우는 일 따위는 역사의 반동밖에 안되며, 역사적 사실로서 단군과 고조선은 논리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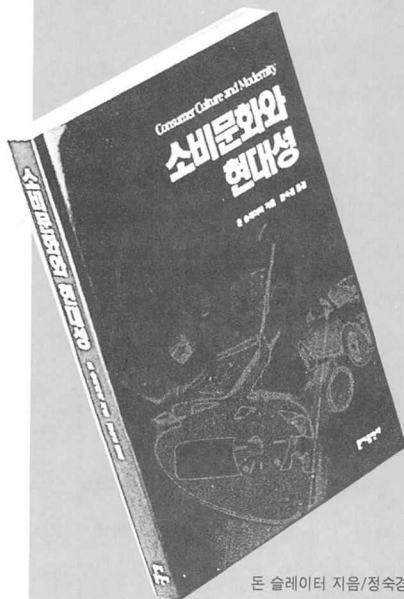
다만 그것이 올바르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전 고대사 체계 속에서 단군과 고조선사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송호정

서울대 강사. 한신대 박물관 특별연구원. 논문 <고조선 국가형성 과정 연구>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부여의 기원과 그 성장과정> 외.

소비주의 논의의 이론 재구성 이론적 배경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워

<소비문화와 현대성>



1980년대부터 서구는 새로운 소비주의가 강력하게 대두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생산의 수준에서는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에서 포스트포드주의적인 유연생산으로 이행한 것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발달된 마케팅 기법과 광고, 그리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자기 정체성을 소비영역에서 재구성하는 사회집단('여파'가 대표적이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흐름은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커다란 지원세력이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사회로 이행할 것을 주창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주권이라는 후광을 씌워줬고, 포스트모더니즘은 그것에 일상생활의 미학화와 정체성의 실험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사회적 흐름은 소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관심을 촉발했으며, 소비주의 연구라는 일련의 연구 경향을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소비연구는 이 새로운 경향의 다양한 의미와 파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천착해 들어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의 역사를 새롭게 분석해나갔다. 그것은 종내는 현대 경제생활에 대한 연구에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생산중심주의에 도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비에 주목했으나

무시됐던 이론가들, 예컨대 쥘바르트·짐멜·베블렌 등이 재평가됐다). 사실 생산의 증대가 없이 소비는 증가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 유효수요 없이 생산은 확대되지 않는다. 닭과 달걀의 우선 순위를 따지는 것과 같은 이런 문제는 매우 풍요로운 역사적 연구를 양산하기도 했다.

돈 슬레이터의 <소비문화와 현대성>은 이런 연구 성과들을 소비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테마와 연결, 독특한 방식으로 재구성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장 <소비문화와 현대성>에서 그는 생산주의에 대항하는 수정주의적 소비연구를 검토하며 양자의 논쟁을 상업혁명론을 통해 극복한다. 2장 <시장의 자유>는 소비자 주권 개념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소비 문제와 자유주의의 한계를 분석한다. 3장 <소비와 문화>에서는 소비에 대한 인류학적 논의로부터 욕구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가며, 4장 <상품문화>에서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소비 연구를 개괄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5장 <사물의 의미>에서는 소비에 대한 기호학적인 분석을, 6장 <사물의 쓰임새>에서는 더글러스·부르디외·윌리스 등의 연구를 살핀다. 그리고 마지막 장 <새로운 시대인가?>에서는 1980년대 이래 새로운 소비주의의 의미를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포디즘과 관련해 분석한다.

이런 논의의 전개방식은 물론 연전에 번역된 매크래켄의 <문화와 소비>(문예출판사, 1996)에 비하면, 소비 자체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더해 주는 않는다. 또한 상당한 이론적 배경지식이 없는 한 이해가 어렵다. 하지만 소비주의 논의의 맥락과 쟁점, 그리고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론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매우 유용하다. 또한 1990년대부터 우리 사회 또한 이런 소비주의의 문제들로 분석할 만한 사회현상이 많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현상에 접근할 때 염두에 뒀다 할 논점을 정리해 준다는 점에서도 일독할 만한 책이다. 단 번역이 다소간 거칠다는 점은 지적해둬야 할 것 같다.

김종업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저서 <웃음의 해석학, 행복의 정치학> <연대와 열광> 외.